세계 화학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…

웅진폴리실리콘 대표이사 백수택

<화학저널>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,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화학업계에 심도 깊은 뉴스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<화학저널>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.

우리나라 화학업계가 성장을 거듭해온 지난 20년간 <화학저널>은 깊이 있는 기사와 발빠른 정보 제공으로 화학산업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.

이제 세계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들어섰으며 화학산업 역시 그 패러다임의 자장 안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

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분야로서 태양광 산업을 제2의 반도체, 풍력 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관련 화학분야 역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.

특히, 많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앞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됩니다.

이러한 변화의 길목에서 <화학저널>은 기업의 방향 설정과 미래 예측 등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.

앞으로도 국내 · 외 화학산업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보다 넓은 시야에서 시장의 변화를 꿰뚫어보는 시각을 가지고 한국이 세계 화학산업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<화학저널>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<화학저널 2011/5/16>